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7년 11월

선교편지 제 104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적도로 부터 매우 가까운, 위도가 약 7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위도가 약 40도이고, 서울이 약 37도쯤 되니까, 날씨와 기온의 영향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쉽게 비교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연중 평균 40도에 가까운 더운 기온으로 인하여 확연히 다른 모양으로 정착되어 있고, 말로만 듣던 자연재해, 질병등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덥고, 습기 차고, 먼지로 범벅이 된 공기를 마셔야하고, 땀으로 인하여 온 몸이 항상 젖어있고,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현지인들의 삶이 무척 고달파 보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와 '유엔 기상 기구' (WMO)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폭염, 자연재해, 대기 오염등이 인간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의 고령자와 어린이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www.thelancet.com : The Lancet Countdown)

저희들도 처음 이곳에 정착할 당시, 이러한 자연 환경 가운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더워서 흘리는 땀이 하루 종일 정말 비오듯 하기 때문입니다.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에만 4대의 선풍기가 있는데, 거실과 침실에 제 아내와 별도의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회전하는 1대의 선풍기로는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기 때문에, 각각 전용 선풍기를 달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때때로 이러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헐적으로 굵고 짧게 내리는 시원한 '소낙비'입니다. 열대 소나기 (Squall)라고 부르는 이 비는, 심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로까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짧은 시간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비가 내리는 저녁에는 마치 성능이 좋은 에어컨을 켜 것처럼 시원해 지기 때문에 모처럼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소낙비는 더위를 식혀줄 뿐만 아니라, 사방에 두껍게 쌓인 먼지를 씻어 내는 고마운 비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네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물놀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더운 곳에서는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런데 이 소낙비가 주일에 내리기라도 하면, 예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걸어서 오거나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로 출석하기 때문에, 소낙비가 심하게 내릴 때 교회 문 밖에서 교인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디고스 예일 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불규칙한 날씨에도 아이들과 함께 질퍽한 땅과 소낙비를 무릅쓰고 예배에 출석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익핏 초등학교 야외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익핏 예일 교회'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난 10월 첫 주일, 맑은 날씨 가운데 디고스예일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후, 익핏 예일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금새 비가 그칠 것으로 기대 했는데, 익핏 예일 교회의 예배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는 것이었습니다. 땅도 질퍽한 정도를 넘어서 물이 차서 올라오고, 비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질 정도 였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10명의 디고스 예일 교회 교인들이 동행 하는데,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오늘 같은 날씨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한 순간 갈등이 있었지만, 10명 모두를 제 차에 태우고 익핏 예일 교회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도의 오토바이 두 대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며 신나게 달려 가지만, 그 날만큼은 소낙비로 인하여 바닥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 차로만 조심스럽게 익핏 예일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이런 험한 날씨에 어느 누가 교회로 올까?'하고 궁금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인 익핏 초등학교에 도착해 보니, 아나나 다를까 어른들은 한명도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어린 아이들은 비를 흠뻑 맞은 상태로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에 젖어 오들오들 떨며, 놀라는 우리들을 평소보다도 더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빗 속에서 밝게 웃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던지, 험한 날씨 중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추위로 떨고 있었기 때문에 강렬한(?) 울동이 동반된 찬양으로 몸을 녹인 후에 간단하



게 말씀을 나누고, 소낙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어른들이 남긴 것을 포함하여 두 배로 간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 4:6)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바오 강변 마을의 어린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건물(?)을 월세로 빌리고, 사역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제 아내와 함께 실내 보수를 하였습니다. 벽돌로 된 건물이 아니고, 나무를 엮어서 만든 구조물 이라서, 빗물과 세월로 인하여 많이 낡은 까닭에 여러 곳에 보수가 필요한 형편 이었습니다. 개미, 모기, 거미, 바퀴벌레가 서식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개구리까지 튀어 나오는 환경 이어서, 전체 구조물 자체를 변경하지 않은 가운데 아이들이 생활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모습으로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지저분하게 부착된 것들을 정리하고, 방충약을 뿌리고, 창틀에 모기장을 붙이고, 바닥에 장판을 깔고, 벽에 두꺼운 비닐을 붙이고, 의자도 새로 구입해서 아쉬운대로 환경을 개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직접 만든 조그만한 '침자가'를 실내 전면 상단에 부착하므로써,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일단계 보수 작업을 마치었습니다.

강변에 접해있는 이 마을의 명칭은 '바카카'인데, 근처 모스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슬렘권 마을입니다. 특정한 날과 때가 되면, 이슬람의 고유 복장인 '부르카'를 입고 왕래를 하는 여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낯설은 외국인이 출입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역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적대시 하는 주민은 없었고, 도리어 자신들의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어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행 18:10)**

제 아내는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암송하고, 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치고, 큰 아이들은 관련 구절의 성경을 읽고, 어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일주일 내내 반복하여 암송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그동안 외었던 성경을 누적해서 암송을 하게 하고 점검과 함께 시상합니다. 그리고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에게 모이를 주듯이, 성경 구절을 마디 마디 불러주어 암송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프로젝터를 동원해서 성경과 관련한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역이 아이들의 관심과 의욕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있으며, 성경을 암송한 것에 대해 상품을 주는 동기 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구별해서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외적으로 저희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구체적인 명칭이 없습니다. 외부에 십자가도 걸 수 없고, '교회'라고도 부를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성경을 읽게 한다고 'Bible Reading Center'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직 성경 몇 권이 전부이지만 'Joy Kid's Librar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제 아내는 '바카카'에서, 저는 '디고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카카 어린이 사역'에 동역할 현지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바카카 지역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강력하게 전파 되고, 저희들도 맡겨진 사명을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시니라 (행 28:28)**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